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스바니야 3:14-18	제2독서	필리피서 4:4-7	복음	루카 3:10-18
--------	------	--------------	------	------------	----	------------

◎말씀 < 주고 감사하기 (Give and Thank you)>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천대받는 이들의 벗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며 무저항주의자이며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을 지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이 오로지 피안의 세계에 잠겨 악기나 연주하면서 지내는 종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지금 추위에 떨고 얼어 죽어 가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아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서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 가는 이웃이 있으면 밥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 한장이라도 사주고,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는 함께 고통에 동참해 주어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여뻐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우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녀 마더 데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줄 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워야만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나눔의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고 나서 잊어 버리는 겁니다.(Give and forget) 더 나아가서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나눠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나눔은 복음적인 나눔이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뭔가를 이웃에게 나눌 때 그리고 '주고 감사하기'(Give and Thank you)를 할 때 그곳이 바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 18일(화)	대림 제3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3,040.00 \$ 960.00
12월 19일(수)	대림 제3주간 수요일	오전 7시30분	성 소 후원 사회복지	\$ 190.00 \$ 200.00
12월 20일(목)	대림 제3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성 물 방 2차헌금	\$ 99.00 \$ 379.00
12월 21일(금)	대림 제3주간 금요일	오후 7시30분	기타수입 사제관건축(론)	\$ 1,250.00 \$58,671.00
12월 22일(토)	대림 제3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64,789.00
12월 23일(일)	대림 제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0명 성인: 194명

교무금 봉헌자 김수용. 이상인. 송민자. 최응철. 김진태. 지동순(11-12월) 정두용. 유지석(9-12월) 이서향(8-12월) 윤여훈(1-12월) 김형진. 전정옥. 임상일(11월) 김창영. 금외주. 이윤상. 현익균. 구준모. 이상기. 지복원. 박용호. 김병준. 황호민. 장대석. 이정규. 장신자(12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이론적 배경은 묵시록 20장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년 뒤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적 천년은 아니다.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만 분명 오신다는 메시지다. 그러니 로마의 박해를 견디며 기다리자는 가르침이었다. 천년왕국 사상은 초대교회를 격려했다. 사탄은 결박당해 던져지고 순교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은 재림 사상과 혼합되어 초대교회 버팀목이 되었다.

묵시록 20장 첫 부분이다.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선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묵시 20,1-3)

160년경 몬타누스(Montanus)의 등장으로 천년왕국 이론은 위험성을 드러낸다. 그는 터키 중부지역(프리기아)에서 활동하던 밀교 사제였다. 개종해 신자가 된 뒤 강력한 종교적 엑스터시(황홀감)를 내세우며 종말의 임박을 설파했다. 당시는 뜨겁던 재림사상이 퇴색해지고 있던 시기였다. 기다려도 주님께선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몬타누스는 인근 도시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까지 예언했다. 많은 교우들이 따랐다. 하지만 종말은 없었다. 추종자의 실망이 깊어질 때 몬타누스는 자살한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엄격한 도덕 생활과 금욕주의 때문이었다.

천년왕국설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금지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는 무(無)천년왕국을 설파했다. 없다는 이론이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시대를 상징할 뿐이라 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부정의 민중운동 이념으로 있다가 위기의 시대엔 등장하곤 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성행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과 여호와와의 증인 역시 천년왕국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과 새 하늘의 시작을 외쳤던 조직이 있다. 다가올 미래라는 뜻의 다미선교회였다. 재림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면 이단이 된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은 있을 것이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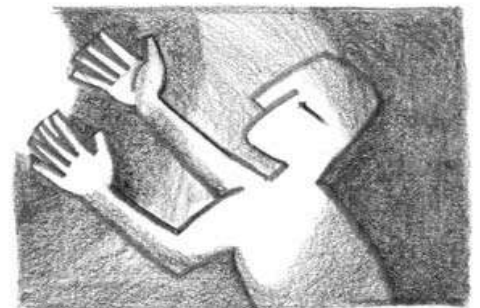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염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염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손남산.루시아의 영혼	9구역	생	(생일)이종만.모세, 임복순.골롬바의 영육간 건강	임그라시아
			생	이종만.모세, 이영숙.데레사 임복순.골롬바의 영육간 건강	진엘리사

간
장
중
지

◎감사◎
외롭고 슬프고 고단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 내가 드릴 말씀은 ‘고맙습니다. 주님.’
내 세상 끝 날에 흑 눈물 흘릴지라도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마중기 노렌조 · 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공동체 소식(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은혜로운 대림절이 되세요.

- 1.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6일(일)성당에서 오후3시출발
참여단체;회장단.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꼬미시움;16일(일)오후2시.엘리사벳방
소화데레사;16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울뜨레아;19일(수)오후7시30분.엘리사벳방
- 3.대림절 특별강론
일시;16일(일)오후1시-2시.성당
주제;고독과 육화의 신비.
강사;채흥락.시몬신부님
- 4.봉성체 및 환자방문
일시;20일(목)오전9시.부제님
박성진.율리아자매님께 미리 신청해주세요.
- 5.손님신부 판공성사
일시;16일(일)오전10시-11시.고해실
- 6.성탄판공성사(성사표;사무실에 준비되어있음)
대림시기동안 미사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들과 함께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 7.주님 성탄대축일 전례 및 행사안내
성탄대축일 밤미사;24일(월)오후8시.초준비.
성탄대축일 낮미사;25일(화)오전11시.
성탄행사;낮미사후.구역별(주일학교)장기자랑
기쁜성탄위해 도네이션 부탁해요(신청;김선식)
도네이션:신부님(\$100)이강덕(\$100)이재덕TV
김평옥(\$100)김양순(\$50)
- 8.유아세례신청:전례부(24일까지)
- 9.성탄맞이 본당청소;담당(게시판참조해주세요)
- 10.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8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김희정.가브리엘라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11.제단체.부서 결산및 내년도 계획서 제출

계획서제출:김동현총무님(23일까지)

12.매일미사 신청(2019년용)

매일미사 신청해주세요(신청;주모니카.1년\$45)

13.내년도 달력배부;1가정당 1부씩 가져가세요.

14.정혜도선관 회원권 갱신 안내

일반회원(\$20/년)65세이상 시니어회원(\$10/년)

2019년부터 월2회(둘째와 넷째 일요일)개관

15.제대꽃꽂이 봉사자 모집(문의:전례부장)

16.혼인갱신식

일시;30일(일)교중미사중(반지지참해주세요)

17.감사합니다(도네이션)

김평옥(화재재난:\$100)정혜기타반(성당:\$1,000)

<주일/한글학교 소식>

학생복사단 교육;16일(일)모든 학생복사단원

장소;11시미사후 사무실 앞에 모여주세요.

NCKCY 주최 YOUTH DAY 2019

일시;1월5일(토) 대상;7~9학년(23일까지 신청)

참가비;1인당 \$30불(전액성당지원)

문의/신청:김형일.안드레아

첫영성체 교리반;;격주 일요일 오전10시.사무실

- 식사봉사(이번주);여성회 보조;전정옥.이주순
-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전정옥,전기례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5.6구역
- 원캠페인;없음 잔액;\$8,000
- 개인별 약정금액을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관건립기금;없음
- 목주기도;810단
- 합계;518,529단

화답 송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 의거룩 하신분 너희 가운데 계신분은 위대 하시다

전례봉사	대림제3주일(12월16일)	대림제4주일(12월23일)	성가정축일(12월30일)	주님공현축일(1월6일)
해 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김용문.요한
제1독서	임정남.실비아	김상범.히지노	진엘리사.엘리사	김승재.파스칼
제2독서	안강순.안젤라	기은희.마리아	안강순.안젤라	양방림.베로니카
복 사	최진호.송돈희	최준우.허호영	송돈희.박성호	최진호.박성호
봉헌/기도/청소	5-6구역	5-6구역	5-6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송돈희.임상일	나송희.류정임	안강순.고원석	이나숙.정의주